

시각장애인여성회 회원과의 세미나

일시: 03.12.17(수) 저녁 4시

장소: 시각장애인여성회 사무실(성북구 상월곡동)

참석자: 시각장애여성: 이낙영, 조경아, 이경혜, 원순희, 양춘희, 조미은

여성팀: 이희정, 박지주, 김광이, 이호선

1. 결혼생활에서의 차별

- 중도실명의 여성인 경우 가족 차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100% 이혼이다. 남성의 경우는 중도실명을 이유로 이혼 당하는 경우가 좀 덜하다.

언어폭력, 눈치를 준다.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한다. “밥이나 하고 있어라”. 지체장애와 다른 점인데 “움직이면 물건이 깨지거나 사람이 다치니 움직이지 마라”고 지시한다.

-이혼한다고 장애여성이라고 위자료를 더 주는 것은 없다. 비장애여성의 경우는 이혼 후 식당일이든 노동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시각장애여성은 어렵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혼하자는 직접적인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혼하게끔 상황을 만들어간다.

사업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끔 애 때문에 한번 와서 보고 가는 것 뿐.

-이혼할 때 돈을 거의 남편에게 빼앗긴다. 어떤 사람의 경우 5천만원이나 빼앗겨 소송을 제기하라고 해봤으나 소송은 너무 복잡하다고 포기했다.

쉽게 법률상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상담자도 시각장애여성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당사자여야 한다.

-시아머니가 반찬을 해줄 때 오히려 비장애 며느리에게만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인정을 안하는 것이다.

- 가사도우미, 파출부를 고용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여성인 경우 24시간 고용되다보니 친해져서 주인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애인을 데리고 있어주는 형편이 되어 냉가슴 앓게 된다.(24시간 파출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비슷하다. 동정하는 듯하면서 무시된다.

2.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차별

- 안마업의 경우 육체노동이라 힘들어서 임신 6개월 정도부터 쉰다. 휴직은 안되고 퇴사한다. 서너달 쉬고 재취업한다. 건당 임금이 계산되므로 재 취업시 임금문제 차이는 없고 재취업도 어렵지 않다.

- 애 키우면서 힘든 점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거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토하면 목걸이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할 수 없는 점도 있지만 우유를 타서 먹이는 것은 할 수 있다. 일부 이유로 모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이 못 키우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 10여 년을 고생했다.

키우는 할머니와는 아이가 눈을 맞추나, 자신은 눈도 못 맞춘다. 안아보지도 못하고 엄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면만을 보는 것이 문제이다.

-아이 키울 때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엄마를 보고 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친구와 잘 못 놀까하는 우려에서 아이의 용돈을 더 준다. 친구가 오면 차비를 줘서 보낸다.

아이의 공부도 못 봐주니까 도우미가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부모 모시고 오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해 당당히 가서 상담도 하고 돌아왔다.

-장애여성 스스로가 육아 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 낳았는데 또 낳으려면 부모에게 부탁할 수 없었다. 내가 손 놓으면 가족이 다 굶어야 하고...

3.성희롱관련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을 만졌는데, 내가 욕을 했다. 그래도 눈이 안보이니까 남자가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버렸다.

-밤늦게 남편과 같이 가는데 쓰레기 치우던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도 얼굴이 사과같다는등 놀리며 가슴을 만졌다. 남편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어떤 다른 사람이 사과를 했다.

안보이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약시장애여성] 전철에서 60세 정도의 노인이 엉덩이를 만졌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러나, 넓은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무방비 상태이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보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보이지 않으니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억울하다. 실수라도 부딪히면 모욕감이 느껴진다. 상황판단이 안 된다.

-호텔 안마할 때 복도에서 호텔 종사자가 건드리며 장난을 했다. 누군지 모른척하며 “어떤 개새끼가 건드린다고” 빗대서 말하자 자신이라 사과했다.

-안마하는 곳에서도 손님이 계산할 때 돈을 얼굴 앞에서 말없이 흔든다. 그러나, 바람으로 느껴진다.

4. 성정체성 관련/가족내 차별

-어려서 언니나 동생에게는 옷이나 머리핀 등을 살 때 어떤 것을 살지 물어서 사다주었으나 자신에게는 묻지 않았다. 사와서도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스무 살이 넘어서도 백화점에 갈 때 자신은 제외되었다.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여동생 결혼식 때는 자신도 참석해서 가족사진을 찍고싶은 것이 현재 소망이다.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오면 자신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침 뱉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차단되었던 부분도 있다.

-언니가 학교를 데려다주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라고 했다. 시각장애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5. 교육관련 차별

- 인문계/실업계가 나뉘지지 않는다. 대학진학 하려면 힘들고 개인지도를 받아야 한다.
- 최근 인문계 /실업계로 나누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론도 조사되고 있다.
- 직업이 한정되어 있어 한 직업에 대한 지식만 있다. 적성검사도 없다. 안마의 특권은 좋지 만 개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직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 학교 안에서 어깨를 만지고 손잡고 아무렇지도 않다. 불편하지 않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6. 노동관련

- 중도실명 전에 생명의 진화 등에서 상담을 했었다. 실명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생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을 받았고, 학교 배치 후 교통상의 조건등으로 다른 학교의 배치를 원하자 그때서야 시각장애임을 알았고, 배정된 학교에서 사전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말을 유도하려 학교의 어려운 조건을 설명함. (계단이 많다. 학내에 차가 많다... 아이들이 많다. 교실을 옮겨야 한다...)
- 본인의 설득과(당신네 학교는 복 받았다. 아이들이 시각장애인이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지 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상 좋은 것이다.) 상담교육 동료의 증언(시각장애인과 생활이 문제가 없음)으로 결국 출근이 되었고 1년간 능력을 인정받으며 다녔다.
- 시각장애여성 중 실제 안마업 종사비율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 신체적 병(당뇨)등으로 실명시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그 외 다수는 기초수급자임.
- 안마사 자격증 취득 힘든 과정이다. 3년을 배운다.
- 중도실명인 경우 수련원에서 2년 반을 배우는데, 한 학기마다 국가시험 치르고 마지막에 최종 국가시험 치뤄서 되는 것이다. 안마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어야 한다.

7. 정보접근 등

- 시각장애여성의 결혼비율 예상 안됨.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많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중도 시각장애여성은 안보이니까 남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성경 읽는 일밖에 모른다.
- 고집이 세다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어서 여러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한 현상이다.
- 아는 분이 중도 실명하면서 집에만 계시다 돌아가셨다.
- 본인도 실명 후 정보를 얻는데 난감했다 관련단체들이 있는지 여부도 몰랐고...
- 추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각장애여성인 동생을 둔 식당주인이 “시각장애인이 밖에 다닐 수 있냐”며 놀라워했다.
- 일시에 모든 정보가 차단된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정보를 주어야만 된다.
- 메스컴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대상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시각장애여성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동사무소에 장애등록시 안내문 테이프 등을 무조건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편의제공관련

- 기차를 타면 안내에 가면 역무원에게 기차문 앞까지 보조를 하나 객차 안까지 안내하지 않는다.(역무원은 기차를 타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함) 승무원에게 안내를 연결해주지 않는다. 객차 안은 위험하다. 문여는 방식도 다르고 화장실 위치도 모르고, 자리위치등 안내방송에 불편사항을 승무원이 지나갈 때 말하라고 하나, 지나가는 여부 알 수 없다. 물건 파는 사람에게 시각장애인이 탔음을 승무원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도착여부를 알 수 없어 긴 시간 탑승에도 잠을 잘 수도 없다.
- 고속버스를 타면 화장실까지 동행을 부탁하기 어렵고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모두 거부하기에 심지어 2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다.
- 소리가 나지 않으면 옆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기 어렵고, 남성의 경우 잘못 만졌다가 치한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다.
- 새벽4시에 영등포기차역에 내린 경험이 있으나 모두 가버려 혼자 서 있다가 114를 거쳐 요청하여 역무원이 왔으나 확인 후 그냥 가버린 경우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지 모르고 본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추후“ 지나갈 때 말하지요”라고 말했다. 적절한 안내교육이 필요하다.
- 부산 모 시각장애인단체 후원회장이 뷔페를 초청하였다. 비빔밥이 좋다고 조인했으나 형식상 뷔페가 더 좋다고 결정한 것. 200명의 시각장애인이 뷔페를 먹기에 시간이 너무 걸려 일부는 먹고 다수가 못 먹고 있자, “안내가 지나갈 때 밥좀주소” 하고 소리 지르라 했다. 못먹고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으나 지나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시각장애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 특히 중도실명인 경우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각장애인인지 몰라보는 경우가 많다.
- 안내 관련한 교육시 시각장애단체에 내용을 확인 후 교육내용을 잡아야 한다.
- 외국에서 선물을 사려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힘들고 해서 사지 않거나 대충 사는 경우도 있다. “별거 없어”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판단해버려 포기했는데 다른 일행이 물건을 사온 경우가 있었다.

9. 언론 매체등 관련

- 외국인 인터뷰시 자막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다.
- 축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히딩크 인터뷰를 기대했으나 자막처리 됐다.
- 실제 중요한 부분은 자막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티ئات한 관련 프로에서 외국인 모두 더빙되다가 정작 티ئات한 본인의 것은 자막처리 되었다.
- 매스컴의 역할 중요하다. 인어아가씨의 경우 역할도 비중 있었고 장애특성을 세밀하게 잘 그려냈으나, 마지막에 화재로 죽는 상황이 끔찍하게 묘사된 것이 큰 문제점이었다.
- 직후에 집을 구하러 다녔으나 불낸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전에도 집을 빌릴 때 꺼렸을터이나 시청율로 봐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이 컸을 것이다.

- 드라마등 매스컴에서는 시각장애여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낼 때 유전적 요인이나 비관적으로 그려지지 않도록 작가에게 조언을 한 경우가 있다.